

## 광주 3조3244억·전남 8조8928억 정부 예산 확보

市, 전년 대비 1818억원 증액  
미래산업·꽃잠도시 추진 탄력  
道, 2년 연속 9조원 달성 기대  
SOC·문화관광·에너지 등 성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주 3조3244억원, 전남도 8조8928억원이 각각 반영돼 양 시·도의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미래차 부품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전남도는 도로·철도 분야 등 SOC 사업에서 승통이 트였다. 반면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등 일부 현안은 정부예산안에서 빠져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각 청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액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광주시의 내년 정부예산은 전년도 3조1426억원보다 1818억원(5.8%) 증액됐

시·도 내년 주요 사업 국비예산			
광주시	전남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98억원	완도~강진 고속도로	37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132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694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35억60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47억6000만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44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60억원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	30억원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비	24억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42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402억원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3억원	미래 모빌리티 총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30억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3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	44억원
수소도시 조성	65억원		

다.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 주요 사업은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등이다. 또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42억원) 등도 반

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특화단지 등을 연계한 광주 미래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비(1398억원)도 전년 대비 100억원 가량 추가 확보됐다. 이밖에 빛고을 수상공원 조성(8억4000만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

등도 반영돼 꽃잠도시를 위한 Y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AI 2단계 사업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9000억원이 반영되며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 8조6021억원 대비 2907억원(3.4%) 증가한 규모다.

전남도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SOC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농·수·축산 미래 융

복합, 첨단 R&D 및 에너지 신산업, 도민 안전 및 편의 등 사업 분야도 골고루 반영돼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 확충으로, 전남도는 이번 예산안에 신규 사업 47건, 총 1254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대표 신규 사업 분야로는 △완도~강진 고속도로(37억원) △순천·진도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각 30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41억5000만원) 등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력투구해 최종 의결까지 호남권 SOC 사업 국고 지원 및 K-디즈니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지속 건의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노병호·오지현 기자

## 내년 나라살림 677조4천억... 총지출 증가율 3.2%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편성  
24조 지출 구조조정 '긴축재정'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 포인트(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원)가 총 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어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한 셈이다.

허리띠를 졸라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가지 정책 분야에 재투자한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필리핀 공무원 김치담기 체험 코이카 글로벌 연수에 참여한 필리핀 공무원들이 27일 광주김치타운에서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과 직원, 빛고을사랑봉사단과 함께 담근 김치를 보여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광주지역 필리핀 이주민가정 7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양배 기자

##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은 도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 대통령 '민생토론회'('24년 3월)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
- ◆ 국무총리 '정부합동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4년 3월)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견 수렴해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 추진'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6월)  
'교육부는 전남도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7월)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 검토'

전남도가 정부 요청대로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추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전남도는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양 대학이 참여하고 은 도민이 합심해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추천되지 않은 지역과 대학에 대해서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